

내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예쁜 단풍이 낙엽이 되니 조금 귀찮습니다.
 소음 같은 소리가 너무 많아 이런저런 소리 없는 곳에서 살고 싶기도 합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 올해의 성경 통독은 부담이 되곤 했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살짝 길어지는 것 같아 살짝 짜증도 납니다.

- 내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낙엽 떨어지는 것을 보았으면
- 내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음악 소리,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 내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성경을 눈으로 읽을 수 있다면
- 내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필립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다면
- 지금 당장 죽어도 좋겠습니다.

보거나 듣거나 말하지도 못했던 헬렌 켈러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생애에 단 한 번만이라도 보고 듣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말하고 듣고 보고 있음에도
 당연하듯, 귀찮은 듯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무지개를 볼 수 있고 석양의 노을도 볼 수 있음을.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우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음을.
 찬양대의 찬양 소리와 아이들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을 수 있음을.
 그리고 늘 은혜로운 것은 아니겠지만(^_^) 매 주일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음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The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040 中文 (347)965-0343 Fax:(718)886-5555 http://www.kapcq.org

- 담임목사 김성국
- 부목사 김도현/OPEM(347)450-7736 첸위치/CM(347)965-0343 차평화/교육부, 고등부(703)819-8785 손요한/행정, 양육(646)789-1118
 최진식/훈련(646)887-7419 허준/중국교포부(행정)(718)640-7905 김정민/그루터기 청년부(914)648-9996
 김재상/(347)933-1805
- 전도목사 이신은(646)220-8324 V.Son/RM, 다민족 선교사(917)940-0596
 전도사 이양미/1교구(516)717-8720 함미희/2교구(917)359-2857 교부영/3교구(917)423-5298 이소영/새가족(347)610-5399
 한민기/QPEM(516)304-9308 전진영/유치부(267)476-2042
 교육전도사 이명옥/영아부(646)705-1005 강지영/유아부, 킴스아카데미, 특별활동부(718)801-2339 팽정은/유년부(347)804-5366
 이오스탄/초등부(631)617-1339 김성은/중등부(347)906-2003 허장길/(516)410-4121 황웨이/얼통부(646)688-8616
 린전전/유얼부(646)234-5219
- 협력전도사 윤원상(201)681-7899 계화자(646)641-8944
 직원 정진규/관리(646)651-7255 홍현숙/비서실(201)759-0820
 찬양대 1부 / 임마누엘 찬양대 2부 / 호산나 찬양대 3부 / 시온 찬양대
 지휘 / 윤두현 지휘 / 강혜영 지휘 / 최진식
 반주 / 송소영 임세현 반주 / 김정윤 이승은 반주 / 최미희

다시 일어나 다민족과 다음세대를 품는 교회

말씀으로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미주 한인 예수교장로회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SENIOR PASTOR, REV. SEOUNG KOOK KIM

주일 예배 (1,3부) 추수감사주일 및 총동원주일

주후 2021년 11월 21일
 제 47-47호

1부 / 오전 8:00 김성국 목사
 3부 / 오후 12:30 김성국 목사

* 예배선언	CALL TO WORSHIP		사회자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찬송	HYMN	66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1부 / 정길표 장로 3부 / 차상남 장로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골로새서 3:12-17	사회자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CHOIR	추수감사절 찬송	시온 찬양대
말씀	SERMON	불만 인생, 감사 인생	김성국 목사
			1부 / 오재혁 집사
추수감사절 헌금	THANKSGIVING OFFERING & HYMN		3부 / 이단비 집사, 오재혁 집사
* 찬송	HYMN	587 / 1, 4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사회자
* 표는 일어섬			

예배부름 CALL TO WORSHIP		사회자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다같이
* 경배와 찬양 PRAISE & WORSHIP		다같이
헌신기도 PRAYER		2부 / 송동윤 장로
광고 ANNOUNCEMENT		사회자
헌금 및 찬송 OFFERING & HYMN	1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골로새서 3:12-17	사회자
찬양 CHOIR	찬양하세 오 예루살렘	호산나 찬양대
말씀 SERMON	불만 인생, 감사 인생	김성국 목사
추수감사헌금 THANKSGIVING OFFERING		2부/ 심혜진 집사, 이유하 청년
* 찬송 HYMN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사회자

* 표는 일어섬

그루터기 청년예배

추수감사주일 및 총동원주일

오후 2:00 (11/21/21)	사회:윤혜진 집사
예배선언	사회자
신앙고백	다같이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최덕송 청년
광고	이국향 청년
헌금 및 찬송	1 다같이
누가복음 17:11-19	
성경봉독	사회자
엎드리어 감사하니	
말씀	김정민 목사
추수감사헌금	이혜연 집사
봉헌기도	김성국 목사
찬양/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하늘문이 열리는 수요기도예배

오후 8:00 (11/24/21)	사회: 김성국 목사
예배선언	사회자
경배와 찬양	다같이
기도	박경수 집사
광고	사회자
성경봉독	누가복음 17:11-19 사회자
감사 드릴수 밖에 없는 이유	
말씀	김재상 목사
찬송	429 다같이
합심기도	다같이
축도	김성국 목사

교회소식

11월 감사의 달- 여호와께 감사하라

환영

새로 오신 가족들과 교회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사 및 모임

11/21(주) 추수 감사주일 및 총동원 주일	11/24(수) 선교위원회 모임	11/25(목) 추수 감사예배, 터키 만찬
12/1(수) 지도원 성경공부	12/5(주) 선교회 월례회 및 총회	12/5(주)~12/6(월) 연말 당회
12/8(수) 제3기 사역훈련 수료예배 제직회	12/10(금) 구역예배	12/11(토) 교육부 연말당회
12/15(수) 제63기 전도폭발훈련 수료예배 공동의회		12/16(목) 사랑의 바구니
12/19(주) 성탄주일 성탄 축하 찬양제		

알림

- 오늘은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각 예배 시간에 정성껏 준비한 추수감사헌금을 각자 제단 앞에 나와서 봉헌합니다.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 작정 헌금 하시거나 다음 주일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산: (\$300,000.00)
 - 추수 감사예배: 11/25(목) 오후 5:00 예배 후 만찬 (터키 도시락)
 - 터키 만찬을 위한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문의: 각 교구장
 - 오늘 부터 점심식사는 오전 9:00~오후 2:00까지 제공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무료로 교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 2021 추수감사절 학습, 유아세례, 입교, 세례자 (총 57명)**

학 습: 김운, 최리나, 黎文献, 徐燕烽, 林年通, 陈宇, 吴忠华 (7명)

유아세례: 진리아, 진지한, 이다운, 김에서, 명소희, 이예린, 이이나, 문강휴, 김지민, 김시은, 윤소이, 손평안, Lucas Ye, Angela Li, Tian Lin Yan, Christina Hu (16명)

입 교: 김아인, 남건우, 박예빈, 박운선, 심영준, 안아란, 이혜주, 이호수, 임종수, 조하민, 조성현 (11명)

세례: 박미화, 김선화, 최유정, 강원정, 조미영, 허신희, 송마리아, 林宏伟, 毛菊妹, 孙冬华, 周继英, 姚斌, 高慧, 陈武, 崔莲, 姜桂鹤, 杨芦笙, 徐碧玉, 郑英, 尹静, 来嘉棋, 万涵彬, 管梦丹 (23명)
- 천국 여권 사진 촬영 안내** 영상방송부, 사진촬영부와 브리스가 선교회에서 선착순으로 100명에게 무료로 최고급 품질의 사진을 찍어 고급액자에 넣어드립니다.
 - 대상: 70세 이상
 - 일시: 12/5(주), 12/12(주), 12/19(주) | 오전 10:00~오후 1:30
 - 촬영장소: 2층 사진부실
 - 담당자: 팽종익 집사, 이양수 집사
 - 예약신청 및 문의: 로비, 각 교구장
- 후리성 병원에 위치한 웰컴 주차장 셔틀 운행 안내**
 - 11/25(목) 추수감사절 셔틀 운행
 - 운행시간: 오후 4:00~오후 8:00
 - 주차 스티커: 교회 로비
- 11/27(토) 토요일 총동원 새벽기도회 찬양 담당:** 그루터기 청년부 (다음 주: 갓즈윌)
- 가족기념 장학기금:** 류제민 집사, 류순영 권사, 박대희 권사

교우 소식

결혼 남궁영일 집사 (남궁혜령 권사 2DG) 아들 남궁철 군과 정제인 양이 11/20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새가족 염혜인 (그루터기 청년부 1Y)

11/22(월)~11/26(금) 성경 낭독자 명단

오전반: 10:30am | 오후반: 월, 화, 목, 금(9:00pm), 수(7:30pm) Zoom ID: 431 416 0978 | Pass:3927

--	단 8장-12장	호 1장-10장	호 11장-욥3장	암 1장-8장	암9, 욥1, 욥1-4, 미1장
오전반	계화자 전도사	이명옥 전도사	이소영 전도사	손요한 목사	이명옥 전도사
오후반	전진영 전도사	강지영 전도사	고부영 전도사	팽정은 전도사	김성은 전도사

음식 기도

- 월** / 한상윤 이국향 흥한나 김아란 이나
화 / 윤두현 흥한나 김아란 이나
수 / 윤두현 김기원 흥한나 윤혜진
목 / 한상윤 김기원 김아란 흥한나 황의성
금 / 김아람 흥한나 윤혜진
주 / 박찬준 흥한나 이병진
토 / 박찬준 윤혜진 흥한나

헌금하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및 모임 (현장예배가 완전히 재개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모입니다)

주일예배	1부	오전 08:00	본당
	2부	오전 10:30 (온라인)	
	3부	오후 12:30	
	그루터기 청년예배 오후 2:00		
	QBC	오후 4:00	(온라인)
	영어	오후 12:00	양순관 (온라인)
	중국어	오전 09:30	고등부실 (온라인)
	러시아어	오전 08: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본당 (온라인)
		토요일 오전 6:00	본당 (온라인)
수요 기도 예배		수요일 오후 8:00	본당 (온라인)

영아부	주일 오전 10:30	영아부실 (온라인)
유아부	주일 오전 10:30	유아부실 (온라인)
유치부	주일 오전 10:30	유치부실 (온라인)
유년부	주일 오전 10:30	유년부실 (온라인)
초등부	주일 오전 10:30	초등부실 (온라인)
중등부	주일 오전 10:30	중등부실 (온라인)
고등부	주일 오전 10:30	고등부실 (온라인)

출석

1부 예배	러시아어 예배	영아부	고등부
2부 예배	QBC	유아부	유년부
3부 예배	새벽 예배	유치부	얼통부
그루터기 청년예배	수요기도예배	유년부	교회 학교 예배
영어 예배	새가족 환영회	초등부	주일 낮 장년 예배
중국어 예배		중등부	주일 낮 총계

11월 봉사위원

책임 장로: 박정봉 장로

헌신기도	최원일 장로	함용식 장로	남형욱 장로	
책임권사				
실내 안내	김 만, 오영자, 홍지혁, 강석춘, 김동순, 박경수, 강호, 권향련	정사용, 허영미, 문인숙, 이미셀, 심원희	허 강, 오성태, 장지숙, 정민영, 김수자, 마성현, 배강원	정형진, 권동은, 박새롬, 서다인, 전새미, 장윤희, 이예림, 조민주
헌금 위원	박경수, 윤영신, 심인보, 채규옥, 차광혁, 채송자, 강석춘, 장현미, 윤순자,	허영미, 문인숙, 전용력, 전인자, 이종구, 심원희, 이경미, 문태일	오성태, 김수자, 박석미, 한원희, 심화숙, 나인애, 장지숙, 이옥수	김누리 권동은 박새롬 정형진 전새미 이예림 조민주 서다인
차량 안내	이정훈	임광섭	강 호	이정훈

주일식사: 연합여성교회 (다음주: 마르다)

온라인 헌금 안내

● Venmo 앱을 이용하시는 경우

"KAPCQ" 를 검색하셔서 금액을 입력하신 후 What is it for? 란에 헌금 종류(주일, 감사, 십일조, 건축, 선교 등)와 한글성명을 기입하시고 송금 하시면 됩니다.

● PayPal 을 이용하시는 경우

페이팔에서 교회 아이디 "KAPCQ@yahoo.com" 로 송금하시거나 링크 "PayPal.me/KAPCQ" 를 이용하셔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파송, 협력 선교사

파송선교사: 알마티르츠장로교회 김관중 선교사 / 캄보디아 이일훈 선교사 박수영 선교사

협력선교사: 미주크리스천신문 / 한인세계선교협의회 / 단비TV / 여운세(캄보디아국제제신학교) / 박선숙(국제장제인선교회 미국) / 강인중(케냐) / 홍황식(파키스탄) / 김성일(터키) / 최득신(프랑스) /

김명희(미국 할렘) / 최동훈(케냐) / 이동철(온두라스) / 이갈렘(중국) / 김호동(불가리아) / 류동하(한국 경남 통영시 사랑도) / 전성호(캄보디아) / 강병권(케냐) / 박일권(중국) / 박준금(키르기스스탄) / 이영호(아리조나) / 이상협(필리핀)

11/22(월) | 샛9:46-57 | 실패로 끝난 왕정 | 찬송가449장

하나님은 악인의 악행을 심판하심은 물론, 무고하게 희생되거나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원한을 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저지른 악을 벌하시되, 그들의 공모에 형제들을 모두 잃은 요담의 저주대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당한 힘에 재산과 생명을 빼앗긴 이들의 억울함을 주목하시고 기억하시며 풀어 주십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권력을 부러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불의한 힘을 휘두르는 사람이 편안히 살고 그 힘에 해를 입은 사람이 불행하게 사는 현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11/23(화) | 샛10:1-18 | 은혜의 시대, 배반의 역사 | 찬송가295장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적절하면서도 과분한 은혜를 베푸시며 진정한 회개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자초한 혼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은혜로 안정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분에 넘치며 가장 적절합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듯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평화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을 섬겼습니다. 겉모양만 있을 뿐, 마음이 담기지 않은 회개에 하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옷이 아닌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께로 돌아쳐야 합니다.

11/24(수) | 샛11:1-11 | 잡류의 머리가 길르앗의 머리로 | 찬송가425장

신체적 혹은 사회적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탁월한 실력을 갖춘 '큰 용사' 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복형제들은 그가 아버지의 기업을 받지 못하도록 그를 추방했습니다. 차별과 추방 때문에 입다는 자기 능력을 허비했고, 이스라엘은 큰 용사를 잃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에도 출신, 배경, 성별, 나이 등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마땅히 주어야 할 권리를 빼앗는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서만큼은 누구나 존중할 대상이고, 수단이 아닌 목적이어야 합니다.

11/25(목) | 샛11:12-28 | 암몬과의 외교전 | 찬송가70장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당성을 변호할 수 있어야 하며 하나님은 선과 악을 판결

하시는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우리의 정체성과 정당성을 모르면 근거 없는 비난에 위축되고 물러나게 됩니다. 교회를 향한 세상의 목소리에는 들어야 할 비판도 있지만 억지 비방도 있습니다. 그런 소리에는 반론을 펼 수 있는 지식과 이해가 필요합니다. 입다는 암몬 왕의 명분 없는 침략과 부당한 요구 앞에서, 이스라엘과 암몬 사이에 누가 옳은지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습니다.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갈등을 겪을 때, 하나님께 공평한 판결을 의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11/26(금) | 샛11:29-40 | 입다의 서원과 비극적 결말 | 찬송가279장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열정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세속에 물든 속물적 생각을 버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협상을 하고, 군대를 모으고, 전쟁을 수행한 입다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배신을 거듭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입다에게 성령을 주신 이도, 암몬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신 이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악한 세력에 맞서야 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하는 우리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하며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11/27(토) | 샛12:1-15 | 작은 마음이 낳은 큰 전쟁 | 찬송가424장

공명심과 그 때문에 생긴 시기과 질투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동을 낳습니다. 강한 힘과 웅졸한 마음이 합쳐지면 잔인한 폭력을 낳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부상하자, 에브라임 지파는 그를 찾아와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에 참지 못한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을 모아 에브라임을 무찔렀고, 도망하는 자들까지 색출해서 죽였습니다.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을수록 더 넉넉해져야 하며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작은 참음과 용서가 크고 참혹한 비극을 막고 평화를 지키는 법입니다.

11/28(주) | 샛13:1-14 | 구원을 시작하라 | 찬송가295장

하나님은 회개의 능력을 상실하여 구원의 가능성이 차단된 불임의 땅 이스라엘에, 새 생명의 씨앗을 심겠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처럼 마노아 부부도 부르짖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그러했고, 우리에게 주실 회복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 절망적인 팬데믹의 시대에도 여전히 주님은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하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